

열린신문

2026 vol. 377

OCTOBER 10월호



말씀 마주보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앞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심을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진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이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언약 앞에서 깊은 신학적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400여 년 만에 멸망하였고, 이스라엘은 분열과 포로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국가적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을 던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을 이해하는 신학적 관점을 발전시켰습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연대기적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적 시간 이해는 ‘언제 이루어지는가’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결정되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다윗 언약은 실패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언약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이후 더욱 분명하게 형성된 메시아 대망은 무너진 왕조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오랜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은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취는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정치적·민족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졌기에, 많은 사람이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한 적이 없지만, 인간은 자기 기대에 맞지 않는 성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와 방식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또한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자신의 시간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삶을 맞추어야 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으로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성진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 행정 편집주간 이성도 최선미 취재팀 김한 신미숙 이숙영 최희주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7 팩스 (031)421-9411 이메일 yullin@yullin.org 홈페이지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방배동 예배당을 거쳐 2002년 4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회복된 성도가 가정을 살린다/회복된 가정이 교회를 살린다/회복된 교회가 세상을 살린다”는 목회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7로 제보 바랍니다.

📖 본문과 오늘

광야를 건너는 힘, 기도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출애굽 후 가나안까지의 길은 멀지 않았지만, 실제 어려움은 거리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익숙해진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또한 광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고, 그 모든 위기 앞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로 ‘차아크’(tsaaq)인데, 이는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모세의 대응

출애굽 후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약 3개월 동안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반복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점점 격렬해져, 모세가 “조금 있으면 백성이 나를 돌로 치려 한다”라고 호소할 정도였습니다(출 17:4).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사람과 다투거나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직후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며 차라리 애굽에 남는 것이 나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담대함의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라는 명령을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백성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하다가 마라에 이르렀지만,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다음에는 먹을 것이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

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직접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모세가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출 16:8-12). 하나님은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 르비딴에서도 물이 없자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느냐”라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네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반면 모세의 모습도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다투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라에서도, 광야의 먹을거리 문제 앞에서도, 르비딴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즉시 진노하시기보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모세를 붙들어 준 힘은 지도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애굽을 떠나 들어선 광야 길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했다.

홍해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고
마라의 쓴 물 앞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기도는 광야를 건너는 힘이었고
부르짖음은 약속을 향한 길이었다.”

모세의 분노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이르러 모세는 처음으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가데스에서 또다시 물이 없자 백성들은 이전과 똑같이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한 뒤,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시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문제는 물을 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께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그 원망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마치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말했고, 하나님의 인자하

심 대신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지도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지도자가 분노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됩니다. 모세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기도로 승리했지만, 한 번의 분노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성경이 출애굽기 초기 광야 사건들에서 모세의 ‘부르짖음(차아크)’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가데스 사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만 기록할 뿐 ‘부르짖음’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마라에서는 원망보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다렸으며, 르비딴에서는 돌에 맞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는 이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기보다 자신의 감정이 먼저 앞섰고,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물과 음식만 공급하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안심했고, 손에 쥐어진 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두려워했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원망했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결핍의 자리에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분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희를 돌보는 분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희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궁핍은 저주가 아니라 배움의 자리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물도 있고 양식도 있으며 풍성한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풍요 속에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맺음말

인생길에서 우리는 모두 홍해를 만나고, 쓴 물을 만나며, 부족함과 갈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하시며 약속의 땅을 향해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완주할 수 있었던 힘은 지도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2040수련회 후기

잎만 무성한 나무



김학진 장년3교구
khjaaaaaa@naver.com



교회 수련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제 마음속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뜻깊은 수련회라며 다들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습니다. 최근 회사를 이직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느라 일상이 무척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다짐하기보다는 그저 육체적인 피로를 견뎌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참석을 결심하게 된 저의 초기 동기는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수련회에 가면 식사도 정성껏 챙겨주시고 중간중간 간식도 주시니, 오랜만에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푹 쉬다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기보다는, 복잡한 일상과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가방에 짐을 챙길 때까지만 해도 거창한 영적 회복이나 도약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저 ‘잘 먹고, 좋은 공기 마시며, 편안하게 쉬다 오자’는 가벼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것이 3년 만에 열린 수련회를 향한 저의 아주 솔직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집회 시간 중,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는 제게 깊은 찡림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제 마음을 강하게 때린 생각은 “아, 나는 그동안 잎만 무성한 나무가지로 살아왔구나”라는 뼈아픈 자각이었습니다. 포도

원 농부이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열매’를 향해 있는데, 정작 저는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여러 모임에도 빠짐없이 나갔지만,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았을 때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저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보다는 그저 나 혼자만의 감사 제목으로만 움켜쥐고 살아왔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일상생활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시선이 늘 ‘열매’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사랑’이며, 이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가지치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지치기란 나의 삶을 그저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과감하게 잘라내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내 뜻과 욕심이 잘려 나갈 때면 때로는 힘들고, 속상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 가지치기야말로 나를 진짜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세밀한 사랑임을 다시금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말씀에서 제게 가장 새롭고 충격적으로 다가온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에서 떨어

져 버려진 마른 가지를 모아다가 불사르는 존재가 다름 아닌 ‘사람(세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고 놓기 싫어했던 세상은, 정작 제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그 순간 저를 무참히 불 속으로 던져 버릴 비정한 존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겼던 관계와 놀이들은 그저 저를 멸망의 불로 이끌기 위해 세상이 던진 달콤한 유혹이었을 뿐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실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단번에 이겨낼 자신은 아직 없습니다. 때로는 또다시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을 새겼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유혹이 거셀지라도, 끝내 세상을 선택하여 스스로 불살라지는 마른 가지가 되지는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기쁨으로 견뎌내며,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분주하고 지쳤던 제 일상에 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메말랐던 심령에 깊은 영적인 만족까지 가득 채워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무의미함과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고, 앞으로의 저의 일상이 더 이상 잎만 무성한 종교인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교회소식



제2회 열린선교대회

‘함께 세우는 하나님 나라’(고전 3:9)를 주제로 한 제2회 열린선교대회가 9월 13일(주일)부터 18일(금)까지 열린교회와 외부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열린교회 주 파송선교사 한 가정과 현지 협력선교사 4가정이 참여해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으며, 성도들이 세계 선교를 보다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3일(주일)에는 선교사와의 만남을 비롯해 캄보디아, 인도, 에스와티니,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의 선교지 부스 체험과 선교특강이 진행됐다. 선교지 부스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선교 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화요전도기도회와 수요일성경기도회, 수요일예배에서는 3명의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5개국의 선교보고가 진행되었다. 금요일기도회에서는 조은아 교수(고든-콘웰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전 카자흐스탄 선교사)의 선교특강과 선교사 파송 및 축복의 시간이 마련됐다. 선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진행됐다. 14일(월)에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을 방문해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헌신과 발자취를 돌아보았으며, 17일(목)에는 선교사 MT를 통해 서로 교제하고 사역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도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 교육

교육: 9월 19일(토)부터 진행 중
10월 10일(토)·17일(토) 오후 4시
문답: 10월 24일(토)·31일(토) 오후 4시
예식: 11월 8일(주일) 2부(10시)·3부(12시) 예배
대상: 유아세례(만 24개월 이전)
학습·세례·입교(만 14세 이상)
장소: 유아세례(별관 1층 영아부실)·세례 및 입교(별관 2층 새가족실)·학습(본관 2층 중계예배실)

도시교회 아웃리치

일시: 10월 3일(토)~4일(주일)
장소: 교구별 협력교회
※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주요사역

3일(토)~4일(주일) 도시교회 아웃리치
6일(화) 안양교도소 대집회(2차)
11일(주일) 정기제직회
11일(주일)~11월 1일(주일) 평신도상담학교(5주)
12일(월) 안양교도소 봉사원 모임
19일(월)~26일(월) 사경회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20일(화)~25일(주일) 사경회 홍보전도
24일(토) 사랑부 가을 예제르
24일(토)~11월 14일(토) 예비일꾼교육(4주)
청년부 예비리더교육(4주)
27일(화)~29일(목) 가을말씀사경회
교회학교 가을말씀사경회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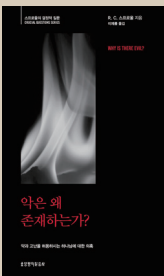
악은 왜 존재하는가?

R.C. 스프로울 / 생명의말씀사

…스프로울은 악의 존재와 기원에 답하는 일은 그에게도 어렵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어떤 부분은 계속 신비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악의 실재를 추적하다 보면 선의 실재를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실재를 반증하게 된다. 스프로울은 말한다. “분명 어려운 질문이지만, 확실히 그리스도인에게 더 유리한 질문이다.” 기독교에 공격적인 질문이 어떻게 우호적인 질문으로 바뀌는지 그 반전 앞에서 하나님을 높게 될 것이다.

…고난의 존재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의 책임은 우리 죄에 있는가?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신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스프로울은 욕의 사례와 하박국 선지자, 신약 시대 성도를 살펴보면, 성도의 고난이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말한다. 구속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약속이 소망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 자비하심과 은혜를 의심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이들에게 이 책이 시원한 단비가 되어 거침없는 믿음, 받은 증거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생명의말씀사)



베트남아웃리치 후기

‘리서치’로 시작해 선교를 배우다



나에게 선교는 주로 물질적 후원을 통한 간접적인 참여였다. 그러던 중 교구 목사님의 권유로 ‘26년 선교학교에 등록했다. 아내도 함께 등록한다고 하니 웬지 힘(?)이 느껴졌다.

선교학교 첫날, 선교지별 모임에서 어디로 갈지 망설이다 영화 ‘신의 악단’이 생각나 태국 NK팀에 참여했다. 아내는 베트남팀에 갔다. 그런데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내가 베트남 아웃리치 팀장을 맡게 되었다고 했다. 느낌이 썰됐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부터 나는 베트남팀에 앉아 있었고, 결국 베트남행 티켓까지 끊었다. 아내를 통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번 아웃리치는 우리 교회가 처음 방문하는 지역에서 현지 선교사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향후 동역의 방향을 살피는 리서치 성격의 사역이었다. ‘리서치라...’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현지의 응웬 반 떼 선교사님과 격주로 현지 상황과 사역을 나누며,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어·중국어·영어를 가르치고 가정교회인 빈옌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삶을 알게 되었다. 전도에 많은 제약이 있는 베트남에서 선교사님은 어학원을 통해 ‘창조, 생명, 구원, 진리’와 같은 단어로 조심스럽게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다.

7월 25일, 베트남에 도착했다. 우기라는 걱정과 달리 하노이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빈옌으로 향하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복음을 접한 그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

했고, 이제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보고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온 내가 오히려 민망해졌다.

빈옌은 하노이에서 약 50km 떨어진 산업도시로, 젊은 이들이 외국 기업 취업을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다. 선교사님은 이들을 찾아 일대일로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 척박해 보이는 산업단지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수고는 멈추지 않았고, 그곳에 복음의 작은 씨앗이 심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날 주일에는 복옌교회를 방문했다. 교인들은 우리를 위해 김명선의 ‘시선’을 한국어로 특송했다. 유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환영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들의 찬양에 담긴 베트남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주일 저녁에는 선교사님 어학원 수강생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 한국어를 배우는 성인들이었고, 나와 함께한 수강생은 한국 유학을 꿈꾸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한국 이름은 ‘미영’ 양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베트남에 왔다고 하자, 미영 양은 교회에 대해 들어봤지만 아직 자신에게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젊은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 중 빈옌에 교회를 세우려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자, 한 여성 수강생이 교회가 세워지면 함께하겠다고 했다. 할렐루야! 예비 성도를 만난 것 같았다. 이곳의 젊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셋째 날에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처음 접했던 산업단지에서 함께 노방 전도를 했다. 이어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 온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나중에 선교사님을 통해 그날이 그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한 첫날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열어 주신 첫 번째 가정이었다.

이후 빈옌 외곽의 가정교회 예배처를 방문했다. 약 4평의 공간에 세 가정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정식 교회를 세우기까지 많은 과제가 있었지만, 황티홍아 선교사님은 복음을 접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품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빈옌에 세워 가실 교회와 우리 교회의 동역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된 시간이었다.

다음 날에는 폭우 속에서 현지 아이들을 만나 칠교놀이로 통해 천지창조와 인간의 죄, 예수님의 구원을 전했다. 어쩌면 아이들과 부모님이 생애 처음 들은 복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아웃리치 전에 나는 선교를 물질적 후원이나 멀리서 바라보는 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모습을 직접 보며 깨달았다. 선교는 내가 무언가를 보여 주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현장으로 들어가 동참하는 것이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트남 땅에 허락하실 또 다른 기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다. ☆



이재훈 장년4교구
ony712@naver.com



캄보디아아웃리치 후기

우는 자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작년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함께했던 대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올해 다시 캄보디아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연한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과 닮았지만 캄똥스페우의 하늘은 끝없이 펼쳐진 광야와 여전히 사이 좋게 맞닿아 있었고, 그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여호수아센터는 올해도 더욱 든든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환한 미소로 먼저 다가와 준 캄보디아 아이들도 맛별이 가정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밝은 웃음으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이름표를 만들기 위해 두세 번씩 이름을 물어보고, 씩스럽지만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들려주며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마냥 뿌듯해하던 아이들, 복음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다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손을 번쩍 들고 자신 있게 오답을 외치던 아이들,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뒤에서 눈치를 보며 장난치던 아이들, 단잠에 빠진 동생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두 손으로 꼭 안고 있던 아이들, 찹찹히 앉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이들, 죄의 고백을 물총으로 하나씩 격파하며 결국 온 마당을 물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아이들, 작은 품으로 있는 힘껏 나를 먼저 껴안아준 아이들....

그 어느 한 모습도, 어느 한 아이도 예쁘지 않은 아이가 없었고 귀하지 않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문득 나의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당연함은 어린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나를 위로해 주는 이유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것은 내 마음 한편에 아픈 후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올해 맡겨 주신 어린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위로였고 용서였으며, 다시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과 나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놓쳐 버렸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아이들의 모습을 캄보디아의 아이들 속에서 다시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난 인생과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림고 보고 싶은 마음을 느낄 틈조차 없이 해야 할 일들로 삶을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캄보디아 선교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곳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작은 사랑과 섬

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마친 후, 선교사님께서 안내해 주신 뚜엿슬랭을 방문했습니다. 참혹했던 캄보디아의 비극적인 과거를 마주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특정한 이념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깊은 비인간화의 끝으로 향할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곳곳에 남겨진 최악의 흔적들은 단순히 한 시대의 실패한 정치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저버린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 상처와 비극을 남길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고통받았던 이들의 흔적을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의 웃음과 그 땅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의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 속에서 지금도 그 땅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함께 우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닮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캄보디아도 더 이상 고통과 죽음의 역사로만 기억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생명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김도경 장년6교구
6582www@naver.com



캄보디아(청년부)아웃리치 후기

보배를 담은 질그릇

저는 단 한 번도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청년 1국 지체들과 목사님과 떠나는 것이 처음이었고, 바다 건너 낯선 캄보디아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의 역사, 문화, 종교 등등 사전 조사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현지 협력 선교사님께 캄보디아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줌으로 진행했던 기도회를 통해 아웃리치를 위해,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선교 대원들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그 땅을 밟기 전까지 공감하지 못하고 나와 동떨어진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할 사역으로 특별로 과학 및 영어 교육과, 코스믹 게임, 워십, 무언극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무언극 팀 팀장으로 섬기게 되면서, 약간의 기대와 부담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저를 매우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려는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기간은 하나님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제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경건 훈련의 유익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일정과 마음을 서서히 준비시켜 가셨고, 이전에 좋아하던 것과 시간을 쓰고 싶은 대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의 평안과 말씀을 의지할 때 주시는 믿음과 기쁨

을 경험하며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짐에 감사했습니다.

도착 후 권오병·권에스터 선교사님을 만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찾은 박물관은 캄보디아의 수많은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던 감금 시설이었습니다.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캄보디아로 보내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함께 울며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은 예상치 못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준비해 간 내용을 늦은 시간까지 수정해야 했고, 땀별과 더위에 지치기도 했으며 영적인 공격으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선을 이루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만나고 보고 듣고 생각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다녀오면서 떠오른 생각은, 먼저 믿게 된 자의 책임과 낯선 이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되는 사명의 길을 자신없음으로 미루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이나의 소견에 따라 할 일이 아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남는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리치 사역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보지 못했을 그 땅에서도 하나



황새빈 청년부

1015sabin@naver.com



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지난 100년 동안 그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셨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그 땅을 향한 애통함과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낯선 땅의 낯선 이들을 향해 품게 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낯선 땅과 낯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음을, 보이지 않아도 믿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때에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가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은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가진 상처만 봐도, 회복이 필요한 마음들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심으로 100년 동안 부르신 것만 봐도, 그 땅을 주목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것만 봐도, 우리가 그렇듯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신기합니다. 연고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낯선 땅과 처음 만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하고 애통하게 하시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모든 자리에서도 나를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영혼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의 발걸음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태국(NK)아웃리치 후기

물음표가 느낌표 되기까지

교구 총회에서 태국NK팀의 아웃리치 안내와 초청의 시간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참석을 결심했다. NK팀장님이 아들의 청소년부 담임선생님이신 것, 아들이 일상의 삶 너머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 NK 사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것이 결심의 이유였다.

아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만 기대했다. 나는 아들의 보호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관련 영화 하나와 책 한 권을 읽는 숙제를 안내받았다. 숙제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특히 책을 읽으며 상상조차 어려운 참담한 북한의 현실에 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아웃리치가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다. 성급하게 신청한 것 같아 후회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NK 지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물음표만 늘어갔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다. 릴레이 기도, 저녁 줌 기도모임, 또 개인기도 시간을 통해 팀의 많은 기도 제목과 함께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무릎을 꿇었다. 모든 과정에서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였고, 현지 사역지에서 쉼을 얻고 주님을 만나며 참 평안을 누릴 NK 지체들을 생각하게 하였고, 함께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꿈을 꾸게 하셨다. 많은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어 다가왔다. 아들의 보호자가 아닌 참여자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7월, 아웃리치를 떠났다.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두 명의 NK 형제와 함께했다. 서로 많이 어

색했다. 함께 페인트를 칠하고 지붕을 고치며 대가 없이 땀 흘리는 기쁨을 누리고, 카드 활동을 하며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나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라는 나눔에 다 같이 '쿵'하고 내려앉는 가슴을 움켜잡으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고, 밥이 되기를 기다리며 부엌 한쪽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탈북 과정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족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보육원에서는 음식 만들기과 배식과 놀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섬김의 자리를 함께했고, 그렇게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른, 아이, 보육원 친구들, NK 형제 모두 하나가 되었던 기쁨의 순간들을 함께 경험하고 고백했다. 선상 기도회를 하면서는 생사의 강을 건넌들 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막막함 앞에 다시 선 NK 지체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시 존귀하게 환대하시는 선교사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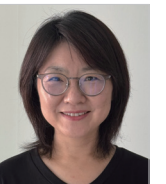
알게 되었다. 선교사님께서 과제로 내주셨던 책을 읽으며 내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던 이유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어 존귀하게 여김받아야 할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땅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알게 되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모든 상황이 단순히 정치·사회·문화적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창조 질서를



윤선영 장년2교구

junerain74@gmail.com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무게를, 그리고 그 무게를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자유를 기대하며 끔찍한 상황들을 견뎌내며 생사의 길을 건너고 있을 NK 지체들이 살아내야 할 삶,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편견과 경제·문화·사회의 벽 앞에서 애쓰고 있는 NK 지체들이 살아내야 하는 또 다른 삶, 산속 보육원에서 묵묵히 그러나 밝은 웃음으로 지내고 있는 40여 명의 어린 친구들이 살아내야 할 삶, 생사의 길을 건너온 NK 지체들을 먹이고 재우며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임을 알게 하는 것을 일상으로 살아내야 할 선교사님의 삶, 그리고 녹록지 않은 현실에 두 발 딛고 서 있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눈물이 난다.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살게 하셨냐고 원망도 할 수 없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할 삶이다. 그래서 이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이 모두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한다. 더불어 교회 밖에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NK 지체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 세워 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이들을 섬기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

원거리아웃리치 후기

주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자리



원거리 아웃리치는 작년부터 참여하게 되었고, 2008년 열린교회에 등록한 이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내 아웃리치에 참여해 왔습니다. 매번 참여할 때마다 품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아웃리치에서 행하는 저의 모습을 통해, 나를 주님의 것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제가 주님의 것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웃리치 날짜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 정해지고 일기예보를 보니,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바람과 비가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씨 역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한 집사님과 함께 자차로 4시간이 넘게 걸려 화흥포항에 도착해서 또다시 배를 타고 50여 분을 더 달려 소안도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아웃리치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던 터라 소안진산교회와 소안도 마을이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작년에 담당했던 마을의 해변길 마을 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소안진산교회를 시무하시는 김흥기 목사님께서서는 67명의 전도 대원을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소안도 지역에 4개월여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며, 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첫날에는 전도 대원들과 함께 정해진 마을의 가가호호를 방문했습니다. 작년에 뵈었던 분들을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 이사로 인해 만나지 못한 가정도 있어 아쉽기도 했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약하게 내렸고, 둘째 날 오후까지 이어졌지만 전도하는 데 지장

없을 만큼 내렸습니다.

둘째 날 밤 10시가 넘어가자 바람이 거세지고 비도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주일 초청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한 집사님과 함께 포토존 준비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이 초청잔치인데 비가 이렇게 오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니 비바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주일예배와 초청잔치를 기쁘고 감사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아웃리치 때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이 함께 사는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어머니를 만나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마을에 빈집이 많아 어느 허름한 집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한 어르신께서 닭 모이를 주러 오셨다가 저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에 들렀던 집의 아버님이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앞서 만났던 어머니께서 다시 찾아와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그 아버님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년들의 섬김을 통해 그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과 함께 교회에 마사지를 받으러 오시는 길에, 어머니는 앞차에, 아들은 제 차에 태우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친구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기에 구원의 근거를 물었더니,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가

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가정의 아버님에게, 올해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처음부터 매우 호의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선물도 드리고 복음을 전하던 중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시더니, 드린 선물도 뿌리치시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분과 헤어지고 걸어 나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소안진산교회의 환대를 받으며 물으로 나오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 안에서 TV를 보니 남해안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안도에서 3박 4일 동안 알맞은 일기를 허락하셔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아웃리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와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과 힘을 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눅 9:62)라는 말씀처럼, 이 글을 통해 만나는 열린교회 지체분들, 이제껏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써 온 지체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 전파에 힘쓸 지체들이 사람의 칭찬이 아닌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온전히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



김성주 장년4교구
sju7575@naver.com



경주자 | 교역자칼럼

꿈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 원준식 전도사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제가 사역에 임하며 품고 있는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 장래 희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3년 동안 토요일마다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활동을 시작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바른 꿈과 바른길을 안내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며 학창 시절을 보내던 중,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조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 평신도 초등부 교사로 섬기며, 한 아이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며 말씀 안에서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어린 아이들의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보육’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제게, 아이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깊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을 때, 정말 순전하게 복음을 가르

치고, 복음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선생님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 질문을 품은 이후 여러 삶의 여정을 거쳐, 지금 저는 소년부 전도사로 많은 초등학교생 만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꿈꾸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가 품었던 소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여름성경학교를 마친 뒤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소년부 단체 사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고등학교 3년 동안 함께 교육봉사를 하며 함께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며 활동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준식아, 너 정말 꿈을 이뤘네! 정말 부럽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제 마음에 주셨던 소망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제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붙드시고 한 걸음씩 지금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들의 삶도 기대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현재 모습만 바라보면 때로는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이도 있고,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마음



원준식 소년부 담당
oen99@naver.com



을 빼앗기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길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인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맡겨주신 자리에서 복음을 충실히 전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아이의 마음에 심으신 말씀과 믿음을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듯이, 지금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의 삶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제게는 참 큰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

새가족

▶▶ 장년

고용석(74) 노성숙(87)
신해정(77) 임연리(95)
정영희(82)
이상하(87)
이우림(85)

▶▶ 청년

김재형(96) 김신혜(91)
김동균(95) 윤두진(94)
신화수(97)
박선아(98)
김성현(98)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목재 경첩이 달린 허름한 좌식 책상이 생각납니다. 소학교도 못 나오신 외할머니는 그 책상 앞에서 수년간 한 글자 한 글자 성경 전권을 필사하셨고, 친할머니는 가족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펼쳐 놓고 매일 새벽 불공을 드리셨습니다. 이런 가정환경 때문인지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종교에 관대했던 저는 40대 초반에야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쇼핑하듯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2010년도에 찾아온 열린교회에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슬하에서 남동생과 함께 자랐고, 지금은 아내와 외동딸과 함께 단출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천주교 세례를 받으셨고, 동생은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권면할 때면 "아멘"으로 화답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믿아들인 저의 신앙을 존중해 주셨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가장 더디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자라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아버지의 회심을 위해 "주님, 우리 가족이 모두 주님의 자녀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저로부터가 아니라 아버지 대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2018년 추운 겨울밤, 김포에 계시던 아버지로부터 동생의 사망 소식을 다급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동생은 37세의 나이에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맛있게 먹고 부모님 앞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죽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주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은 신앙에 완고하시던 아버지를 회심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동생을 먼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 가족에게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동생에게 "너의 몫까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동생은 교회에 등록하거나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권면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작은 고백이, 먼저 믿는 자로 세우신 저의 신앙에 뒤지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08년부터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해 왔습니다. 해외 업무가 적성에도 잘 맞았기에 웬지 모를 소명의식을 느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제가 꿈꿔온 일과 세상에 제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심에 더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은 지쳐갔고, 특히 최근 4년간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열흘간의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아침, 목덜미가 타들어 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잠에서 깬 저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귀국 전에도 같은 증상이 있었지만, 스트레스와 낮은 잠자리 때문에 심하게 담이 걸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청천벽력처럼 '척추동맥 박리'라는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서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척추동맥은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뇌간 등에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동맥이 파열되었다는 것은 생사를 가르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이 선고되고 제 몸이 의료진에게 완전히 맡겨진 그 순간,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고 저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했고, 그때까지의 고통이 말끔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부위였지만 다행히 출혈량이 많지 않아 일주일간의 집중 치료 후 일반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힘은 빠졌지만 어떠한 장애도 없이 살아난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병동으로 옮긴 지 사흘째 되던 밤, 이제 이를 정도 후 집으로 돌아갈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출혈로 인해 저는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이 흐려지고 사지 마비 증세까지 동반되어, 긴급하게 두 차례 더 시술을 받았습니다. 꺼져가는 의식 가운데 "나는 아직 하나님과 동생을 만나 자랑할 것이 없는 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꺼번에 밀려온 인생의 회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더 머물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순전한 물로만 채워진 물통처럼 여기지만, 주님은 때로 고난으로 우리를 흔드셔서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것들을 비우지 않고서는 결코 순전한 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비우라' 하시는 은혜의 명령에 우리는 '비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결국 우리를 비우고 은혜로 채우시는 것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달여의 투병을 마치고 저는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다시 만난 교회와 지체들의 모습이 너무 반가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많은 분이 투병 중에도 기도로 함께해 주셨기에 외롭지 않았고, 섬망과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라고 읊조리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네요." 저 역시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요즘은 가슴에 뜨거운 감사가 넘쳐납니다. 주님은 병마 가운데 저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리게 하였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상심으로 지쳐 있던 저에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만 보고 걸어가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주일 섬김의 자리에 섭니다. 새가족 안내위원으로 섬기면서 마주치는 모든 분이 매주 뵙는 익숙한 얼굴들이지만 뵈 때마다 십수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처럼 마냥 반갑기만 합니다. 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도 마주치는 모든 지체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

곰곰이 생각

이 세상에서 출발이 가장 다른 종교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하나님이나 알라나 같은 뿌리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출발점부터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한 순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럼 죽여주마!

초기 이슬람교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믿어야 했습니다. 오직 '알라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강제의 역사입니다.



알라를 안 믿는다고? 그럼 죽여주마!

하나님과 알라의 출발이 같다고요? '믿어서 죽임을 당한 종교'와 '믿지 않아서 죽인 종교'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태복음 26장 52절)

한 킷 말씀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능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갑작스럽게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면,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2026 가을말씀사경회

믿음의 로드맵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 첫째 날 - “잔치에 풍악이 사라지는 위기에서”(요 2:1~11)
- 둘째 날 -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욥 2:1~10)
- 셋째 날 - “착함까지 회개하지 않으면”(눅 13:1~9)

10.27.(화)~29.(목)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강사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담임)

교회학교 사경회도
각 부서실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주제

영아·유아·유치·유년·초등·소년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창 12:2)

사랑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창 12:2)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회 이동훈
박희준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명성인 심재운 정대한
김하림 이규희 최영광 조일권 오세광 김민성
김요셉 이 찬
- 협동목사 정창욱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혜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순이
- 교육전도사 최현성 박주광 원준식 광승훈 권세원 이해선
한하영

파송선교사

- A국: 1 unit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예배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목요직장인예배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수요성경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토요강단기도회	오후5시(별관 2층 교육실)
	교회학교	
교회학교	청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1층 교육실1)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4층 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3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2층 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영아부실)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 1층 사랑부실)
	사랑부(청년부)	오전10시(별관 2층 교육실)
	외국인	외국인팀 정오12시(세빛교육관 5층 외국인실)
백향목 공동체	봄·가을학기	금요일 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금요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사랑부실)
	데마학교	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영아부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